

‘모사이드’에 언제까지 당할 건가

〈특허 괴물〉

특허 굴러 돈 버는 펀드 나온다

국내 첫 지식재산권 펀드 만든 김홍일 대표

“특허산업? 쉽게 말하면 남의 돈 ‘뺑’ 뜯는 비즈니스예요. 부동산으로 치면 ‘알박기’죠. 이걸 자꾸 기술력과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런 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도 이제 그만 당하고 돈 좀 벌어야 합니다.”

국내 첫 지식재산권 전문 운용사 아이디버릿자산운용 김홍일(46) 대표의 말이다. 그는 “수익모델이 뭐냐”고 묻자 특허산업의 정의부터 내렸다. 핵심 기술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돈을 버는 수익구조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그는 늦어도 6월 중 총 1500억원 규모의 1, 2호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관투자가 몇 곳과 강남의 큰손들도 이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아이디버릿자산운용 김홍일 대표.

공장 담보 잡아봐야 돈 안 돼
강남 큰손들 문의 잇따라
연 6~7%대 수익률이 목표

지식재산권 펀드가 뭐냐.
“생소한 게 당연하다. 선진국엔 지식재산 관련 금융기법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는 초보 단계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말은 들어 봤을 거다. 제품 생산은 하지 않고 특허만 사들여 글로벌 기업들에 특허료를 받는 회사다. 안 주면 소송을 낸다. 기업들로서는 버티기 어렵다. 이런 기업을 요즘엔 특허관리기업(NPEs)이라고 부른다. 이런 기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기업들에 ‘뺑’을 뜯겠다는 건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기업에서 될성부른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사들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에 빌려준 뒤 라이선스료를 받는 거다. 인터넷이나 모사이드 등 미국 특허괴물들의 연 매출 50~60%가 한국 시장에서 나온다. 특허청은 인텔렉추얼벤처스(IV) 등 미국의 대표 NPEs들이 삼성전

해 무감각하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비슷한 유형의 미국 회사들의 연 수익률이 25%쯤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에선 중견 기업 회사채 수익률 정도인 연 6~7%가 목표다.”

특허권을 내주기로 한 기업이 있다.
“아직 상품 출시 전이라 기업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몇몇 대기업 계열 전자회사와는 마무리 단계다. 또 다른 한 대기업 계열사는 핵심특허는 아니더라도 현재 활용도가 낮은 B급 특허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는 얼마나 모았나.
“열심히 뛰고 있다. 우선 6월 첫 상품 출시까지 1500억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기관투자가는 물론 몇몇 금융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회사 프라이빗뱅크(PB) 사업부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고 한다. 공장 담보 잡아봐야 별 거 아니지만 특허는 돈이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다.”

김 대표는 ABN암로-리먼브러더스를 거쳐 지난해 7월 모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창의자본주식회사)에 합류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2010년 지식경제부와 삼성전자 등이 5년간 1500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만든 회사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특허괴물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만 사들여 로열티 수입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권 관리기업(NPEs)을 말한다. 대개 원천기술을 싸게 인수해 글로벌 기업에 비싼 특허료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 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한 인텔렉추얼벤처스가 대표적이다.



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 가격은 2800만~3400만원 현대자동차는 19일 인천 송도 하모니로(路)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3세대 싼타페 모델을 선보였다. 7년 만의 풀체인지다.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41kg·m의 2.0L 엔진과 최고출력 200마력, 최대토크 44.5kg·m의 2.2L 엔진 등 두 가지 모델 모델을 공개했다. 2.0L 엔진의 연비는 L당 17km로, 기존 모델 대비 13% 이상 좋아졌다. 가격은 다음 주 공개된다. 2.0L 모델 기준으로 2800만~3400만원 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자동차]

‘강제 휴무’ 대형마트, 문 일찍 연다

홈플러스 오전 9시로 앞당겨
이마트·롯데마트도 검토 중
휴점 따른 매출 손실 매우 커

대형마트들이 문 여는 시간을 앞당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2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다. 대형마트는 이날을 포함해 앞으로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개점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정된 유통법이 영업시간을 오전 0~8시에만 금지하기 때문이다.

기존 오전 10시였던 개점시간을 가장 먼저 바꾼 곳은 홈플러스.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된 10일개부터 22개 점포에서 한 시간 앞당겨 오전 9시로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 정책을 전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마트·롯데마트도 오전 9시 개점을 검토 중이다. 이마트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부 점포의 개점시간을 앞당긴다. 롯데마트는 고객이 물리는 상황에 따라 점포별로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휴점에 따른 손해를 매우 기 위한 방법이다. 대형마트 세 업체는 이번 의무휴무로 매출 손실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연합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전체의 연간 매출이 9조4710억원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장시간을 앞당기면 판매원에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하지만 매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의무휴업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는 뜻도 있다.

설도원 홈플러스 PR·사회공헌 부문장은 “사실상 이른 오전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휴업으로 불편을 겪게 될 고객에게 서비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0일 법제처 공포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송파·성북·강서와 대구·광주·전주 등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한 지자체 36곳의 대형마트는 넷째 일요일인 22일 문을 닫는다. 이날 휴점하는 곳은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로 총 114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월 “개정 유통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Ballantine's
CHAMPIONSHIP
4월 26일(목) ~ 4월 29일(일)
1R, 2R: 13:30~17:30
3R, FR: 12:00~16:00
-J골프 전라운드 생중계-

주관방송사 : J Golf | KBS | 한국방송

Miguel A. Jiménez | I. Poulter | Y. E. Yang | A. Scott | D. Clarke

발렌타인 챔피언십과 함께하는
틀린그림찾기 이벤트
발렌타인 챔피언십 포스터에서 틀린그림 찾고
2012 발렌타인 챔피언십 보러가자!

- 이벤트 기간: 4월 11일~4월 29일 (2주간)
- 응모 방법: www.jgolff.com 통하여 참여
- 시상품: 캐디백 (1명) / 고급볼 (10명)
- Windbreaker (20개: 이안폴터디자인)
- POLO Shirt (30개: 이안폴터디자인)
- Cap (30개: 이안폴터디자인)
- 발렌타인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15장 (1인 2매)
- 당첨자 발표: 4월 30일 정답자 중 랜덤 추첨
- 발렌타인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은 4월 23일 발표

2012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티켓할인 이벤트
세계 TOP 플레이어들의 멋진 플레이를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 티켓판매: J골프 홈페이지 (www.jgolff.com/ballantines/ticket/)
- 판매기간: 4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 문의전화: 02) 751-9273
-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www.jgolff.com에서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골프캐널
J Golf